

국내 닭 4품종 8계통, 국제기구에 이름 등재

- 우리 품종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 -



재래닭
(현인 황갈색계)



코니쉬
(소래코니쉬B)



햄프셔
(소래뉴햄프셔C)



로드아일랜드
(소래로드아일랜드D)

농 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 4품종 8계통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에프에이오(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4계통, 지역적응품종인 코니쉬 2계통, 햄프셔 1계통, 로드아일랜드 1계통의 등재를 결정했다.

본래 외래종인 코니쉬, 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품종은 지역 농장에서 10세대 이상(19년) 육성해 온 자원으로 지역적응품종으로써 인정할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재래닭 4계통 가운데 3계통은 해당 농가에서 재래닭의 색상 복원을 위해 10세대 이상을 유지해오며 재래닭으로서의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 대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198개 나라 38축종 1만 5천8계통의 정보가 등재돼 있으며, 우리나라 자원은 기존 15축종 99계통에 이번에 등재된 8계통을 포함해 총 107계통으로 늘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성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우리 품종을 인정받으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리 유전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계**